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성숙한 도덕적 주체로 거듭난다. 왜 어떤 행위가 그른지 설명할 능력을 결여한 채 그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말에 따라 이 행위가 그르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이 행위의 그름에 대한 도덕적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왜 그런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부터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이유로부터 유사한 결론을 추론해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개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적 존재라는 정보로부터 반려견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역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도덕적 이해의 핵심은 일인칭적 경험이다. 조지 오웰은 버마에서 목격한 처형 장면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순간에서야 나는 의식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사형수가 두 어깨를 붙잡힌 상태에서도 물웅덩이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만조에 다다른 삶을 끊어버리는 것의 불가사의함을,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릇됨을 보았다.” 이때 오웰이 처형 장면의 경험을 통해 왜 사형이 잔혹한지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의 도덕적 이해 능력이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가 이 상황에서 이유를 따져 추론을 했다거나, 그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대해 어떤 관념도 형성할 수 없다.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열정을 관찰자가 상상을 매개로 느끼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상상해 도덕적 이해에 이르기도 한다. 누군가가 분노의 충동에 싸여 다른 이에게 적개심을 표출하고 싶다고 하자.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해도, 과도한 분노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는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즉각적 감정과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는 관찰자를 상상해야 한다. 이 내재적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를 금지합니다.

관찰자가 분노를 긍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의 행동을 상상된 관찰자의 시각으로 반추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조절과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이 내재적 관찰자는 편견이 없는 공정한 관찰자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 기여한다.

[문제 1] 도덕적 이해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비판하시오.

[문제 2]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가)**, **(나)**, **(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를 금지합니다.

활용 모집단위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 생활과학대학(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문항해설	[문제 1] 행위가 왜 옳고 그른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추론 능력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와, 도덕적 의의를 지닌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 중 자신이 더 공감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상대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2] 문학이 상상, 공감, 감정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와 연결시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한 근거를 설명하고, 문학 독해에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기제가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 (나), (다)를 모두 사용해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학의 도덕적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가), (나), (다)의 유기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지문과의 개별 비교에 주목하거나, [문제 1]에서 사용했던 (가)와 (나)의 대조적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1]의 근거를 반복할 경우,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동시적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출제의도	[문제 1] 도덕적 이해의 요건에 대해 (가)와 (나)가 보이는 차이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하고, 두 견해 중 하나에 입각하여 상대 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 2] 각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내는 확장적, 비판적, 응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도덕적 이해, 추론,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문학의 가치와 기능, 공감, 상상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를 금지합니다.

자료출처	[교과서] 고형진 외,《국어》, 동아출판, 2018, 172-192쪽 김동환 외,《국어》, 교학사, 2018, 12-33쪽 류수열 외,《국어》, 금성출판사, 2018, 164-173쪽 박영민 외,《국어》, 비상교육, 2018, 290-301쪽 신유식 외,《국어》, 미래엔, 2018, 160-173쪽 고형진 외,《독서》, 동아출판, 2019, 26-39, 74-95, 114-133쪽 박영목 외,《독서》, 천재교육, 2019, 24-41, 64-81, 100-115쪽 방민호 외,《독서》, 미래엔, 2019, 22-36, 94-115, 134-151쪽 서 혁 외,《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20-38, 68-75, 84-93, 102-121쪽 이삼형 외,《독서》, 지학사, 2019, 96-109, 74-89, 118-135쪽 한철우 외,《독서》, 비상교육, 2019, 20-38, 68-75, 84-93, 102-121쪽 김창원 외,《문학》, 동아출판, 2019, 10-45, 32-43, 112-125, 270-306쪽 류수열 외,《문학》, 금성출판사, 2019, 11-41, 74-91, 110-127, 290-327쪽 방민호 외,《문학》, 미래엔, 2019, 12-25, 74-98, 292-329쪽 이숭원 외,《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12-19, 76-89, 276-321쪽 한철우 외,《문학》, 비상교육, 2019, 7-36, 58-83, 104-108, 301-327쪽 구정화 외,《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21쪽 박병기 외,《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0-17쪽 육근록 외,《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4-17쪽 이진석 외,《통합사회》, 지학사, 2018, 12-19쪽 정창우 외,《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17쪽 김국현 외,《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8, 32-41쪽 변순용 외,《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8, 34-43쪽 정창우 외,《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8, 32-41쪽 정탁준 외,《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8, 34-41쪽 차우규 외,《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2018, 30-39쪽 류지한 외,《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9, 10-15, 128-135쪽 박찬구 외,《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9, 15-18, 132-141쪽 변순용 외,《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9, 10-15, 128-135쪽 정창우 외,《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9, 11-17, 133-141쪽 황인표 외,《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 11-17, 134-143쪽 [기타] 아담스미스(김광수 역),《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Alison Hills,《Moral Testimony and Moral Epistemology(*Ethics* 120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09 Paulina Sliwa,《Moral Understanding as Knowing Right from Wrong(*Ethics* 127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17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를 금지합니다.